

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: 하라[腹]

일본어에는 몸의 일부를 비유하면서 만들어진 관용구가 많은데 그 중 많이 활용되는 부위가 복부임. 오랜 기간 동안 일본사회에서 복부가 감정, 사상, 의향 등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을 의미함

□ 신체에 관련된 관용구

- 신체의 일부를 인용하여 만들어진 관용구는 어느 나라 언어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극히 보편적인 경향임
- 우리말에서도 눈이 높다 혹은 팔이 안으로 굽다 등과 같이 대부분의 신체 부위가 인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
- 일본어 역시 우리말 못지않게 몸의 일부를 비유하면서 만들어진 관용구가 많은데 그 중 눈에 띄게 많이 활용되는 부위가 복부 즉 배이며 일본어로는 하라(腹)라고 함

□ 관용구를 통해 본 하라(腹)의 의미

- 화가 났을 때는 하라가다츠(腹が立つ)라고 하며, 언어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에 의존하지 않고 상대방의 계획, 의도, 생각 등을 떠볼 때는 하라오사구루(腹を探る)라는 표현이 쓰임
- 또한 상대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라오와루(腹を割る)라고 하는데 즉, 일본어에서는 서로 배속을 활짝 열

어 보이며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를 믿고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음

- 우리말에 속이 검다는 말이 있듯이 이와 비슷하게 일본어에도 나쁜 사람의 하라는 검다는 뜻으로 하라구로이(腹黒い)가 있음
- 연극에서 배우가 대사나 동작에 의지하지 않고 무언으로 심증을 나타내어 말은 배역의 기분을 살리는 일, 그리고 말과 행동이 아닌 배짱이나 경험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하라게이(腹芸)라고 함
- 마주보는 것을 뜻하는 말로 하라아와세(腹合わせ)가 있으며, 예측되는 사태에 대한 마음 속 다짐 즉, 죽을 각오를 뜻하는 말로 하라가마에(腹構え)가 있음.
-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하라를 이용한 표현은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사회에서 복부가 감정, 사상, 의향 등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을 의미함
- * 하라는 쉽게 상대방에게 보여서는 안 될 부위이며 하라 그 자체가 시작과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함

□ 하라키리(腹切り)를 통해 본 일본

- 하라가 일본사람들의 전통적인 행동양식이며 인간관계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근거는 하라키리(腹切り, 할복)를 통해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음
- 할복은 사무라이(侍, 무사)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헤이안(平安)시대부터 있었다고 함
- 봉건시대 사무라이는 인간의 혼과 감정의 근원이 복부에 있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배를 가르는 행동으로 자신의 진

실한 영혼과 감정을 피력할 수 있었음

- * 즉, 사무라이의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신성한 곳으로 의미를 부여했고 사무라이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하라를 갚았던 것이며 그것이 사무라이 세계에서 말하는 존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더해져 사무라이의 죽음 가운데 할복은 그야말로 최고의 명예로 여겨지게 된 것임
- 할복은 사무라이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의미를 지녔으며 할복에 실패하거나 참담한 고통을 빨리 끝내기 위해 배를 가를 때 옆에서 목을 가르는 카이사쿠(介錯)가 있었음
- * 카이사쿠는 그래서 지금은 시중을 든다는 의미와 그런 사람을 칭함
- 현대 일본사회에서 이러한 할복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1970년 우익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(三島由紀夫)의 할복자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일본 사람들조차도 경악한 사건이었음
- 미시마는 45세이던 1970년 11월 25일 도쿄 이치가야(市谷) 육상자위대 동부총감부 총감(사령관)실에서 추종자 4명과 난입하였음
- * 2층 발코니에서 총감을 인질로 잡고 소집한 자위대원 1천명을 내려다보며 “지금 일본의 혼을 유지하는 것은 자위대뿐이다. 너희는 사무라이다. 자신을 부정하는 헌법을 왜 지키고 있단 말인가” 라며 꺾기를 부르짚었음
- * 그러나 야유와 경멸만이 터지자 ‘천황폐하 만세’를 외치더니 총감실로 들어가 일본도로 배를 갈랐고 이어 추종자가 목을 쳐주는 사무라이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음
-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은 잊었던 할복에 대한 쇼크로 일본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꺼려했으나 최근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가 쓴 소설의 전시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음
- * 자위대의 상시 해외파견, 국가주의 교육 강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급격한 보수우익 성향이 짙어지는 분위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음